



아베노믹스와 글로벌 위기 가능성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7월 29일 기사를 통해 일명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.
 - 신문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정부지출, 금융완화, 경제구조개혁을 조합하여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모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경우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.
 - 그러나 만약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막대한 정부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.
 -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마네타는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맞먹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, 최근 IMF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중 하나로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을 꼽은 바 있음.

- Wall Street Journal은 일본의 정부부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일본의 정부부채가 GDP규모의 2.5배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초저금리로 일본 국채를 사들이고 있으나 만약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이 일본정부의 채무이행 능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.
 -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면 일본의 정부부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며, 만약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하도록 할 경우 초인플레이션(Hyper Inflation)에 직면할 수 있음.
 - 일본인의 생활수준 저하, 은행 위기, 이자율 급등 등은 이미 취약해진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.

- 일본은 국채의 대부분을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자국 내 소화물량에 한계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며, 하반기 발표될 경제구조개혁안이 어떤 내용일 지도 미지수임.

- 이코노미스트들은 수년전부터 일본의 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해왔으나 일본 국채의 95%를 은행, 보험회사, 연기금 등 자국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왔음.
 -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가계저축이 감소하면서 자국 내 일본 국채 수요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, 다카토시 이토와 다케오 호시 교수는 자국 내 국채수요의 한계가 7년에서 10년 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함.
 - IMF는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,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,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등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가을 발표될 아베정부의 경제구조개혁안이 어떤 내용일 지는 미지수임.
- 6월 실업률이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지속 중이며, 가계소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7월 30일 일본 정부는 6월 실업률이 3.9%로 전월의 4.1%에 비해 0.2%p 하락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일부에서는 고용개선이 지속될 만큼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.
 - 7월 24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6월 무역수지는 5월 9,964억 엔에 비해 감소한 1,808억 엔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4조 8,438억 엔 적자로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.
 - 7월 30일 발표된 6월 가계소비는 전년동기에 비해 0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기대치인 1.4%를 크게 하회하였고, 소비자물가는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.
-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,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- 미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럽의 재정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뚜렷한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 - 세계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(Wall Street Journal 등)